

#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 제안 설명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지난 40년 가까이 저소득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1982년에 한울회(63개)와 양지회(65개 점포)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석촌시장 상인회가 출범하였고, 1992년에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도와 전기를 공급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에서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와 통제 아래 상행위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송파구청으로부터 101개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송파구청에서는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4억 3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노점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노점상을 보호하고 상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노점)은 7,718개소 중 1,839개소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잣대보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우선으로 보아주셔서 가족의 삶의 터전인 석촌시장의 조그마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모아 이번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청원을 제출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